

있었네. 새하얗게 아름다운 수라트산 바프타도, 또 오색찬란한 진츠도 있었지만, 촘촘한 바탕 무늬에 초록색 잔가지가 그려진 더 희귀한 진츠도 있었어. 이 천들은 중국에서 온 화려한 비단 직물과 같이 펼쳐져 있었는데, 햇빛을 받으면 윤곽이 또렷이 보이는 돈을무늬 비단이며, 하얀 문양이 반들반들하게 빛나는 비단도 있었고, 또 다른 비단은 한 자락 푸른 초원이 펼쳐진다고나, 눈부시게 붉은 빛을 띠는 것도 있었네. 어디 그뿐인가, 분홍빛 태피터니, 풍성한 촉감의 새틴이니, 나사(羅紗)처럼 부드러운 북경 비단이니, 흰색 노란색 어우러진 남경 비단이니, 심지어 마다가스카르식 파뉴도 있었지.

라 투르 부인은 자기 딸이 기분 좋아질 만한 것은 뭐든지 샀으면 했네. 다만 상인들이 딸을 속여 팔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물건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따져봤지. 비르지니가 선택한 것은 다 자기 어머니와 마르그리트와 그 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어. 비르지니가 말했네.

“이건 가구랑 잘 어울리겠고, 저건 마리와 도맹그가 쓰기에 좋겠어요.”

결국 자루에 든 피아스터 동전을 다 쓸 때까지도 비르지니는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생각해내지 못했어. 집안사람들에게 나눠준 선물에서 자기 몫을 다시 해와야 할 정도였지.

폴은 비르지니가 떠날 것을 예고하는 이 값비싼 선물들